SENA 월요일

20.03.09

요한복음 18:28-40

진리를 알아야 보여요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예수님

28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9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는 것이냐?" 30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1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32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당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심문

33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그 말은 네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해 준 것이냐?" 35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냐? 네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네가 저지른 일이 대체 무엇이냐?" 36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37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38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39 유월절에는 내가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40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3 묵상하기

중대한 일이 있어도 유월절에는 이방 사람인 로마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정작 그분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을 죽이려 하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놓아주지 않고 사형 당하도록 내어주는 아이러니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처럼 진리를 모르면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게 한 당시의 사람들처럼, 나도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내 생각과 감정, 세상의 대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32절). 다만 나는 그 뜻 안에서 죄악의 도구가 아닌 아름답게 쓰임 받는 도구여야 합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의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이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키던 유대 사람들처럼, 나도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진 않은지 순간순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학업, 관계, 말과 행동, 선택 등 모든 것의 기준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 앞에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요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일이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인지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 빌라도처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나의 영혼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저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자녀의 삶 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SENA 화요일

20.03.10

요한복음 19:1-16

내 안의 빌라도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

1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2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
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3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
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4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
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
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5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6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
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
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7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
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줌

8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9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
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
다. 10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
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1 예수께서 빌라
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12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
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
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
역하는 자입니다." 13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판(히브리 말로는 가바
다)이라 불리는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14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었고 시간
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15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16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3 묵상하기

빌라도는 시종일관 진실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 사람들을 의식해 채찍질하게 했고, 풀어줄 권한이 있는데도 사람들의 극단적인 반응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결정적인 인물이 되고 맙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안에도 빌라도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타협하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를 매섭게 몰아붙였듯이 악한 세력도 언제든지 나를 궁지에 몰아놓고 난처한 상황으로 시험하겠지만, 진리가 아니라면 물러서지도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도전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4 적용하기

나도 빌라도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자니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고, 대세를 따르자니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든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빌라도처럼 내가 자주 타협하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상황에 다시 처한다면 나의 선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 유대 사람들처럼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일, 극단적인 상황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SENA 수요일

20.03.11

요한복음 19:17-27

어느 쪽인가요?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

17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18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의 양쪽에 각각 한 사람씩 못 박았습니다. 19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20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 그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21 그러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 주십시오." 22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23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넷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갖고는 속옷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24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자."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눠 가지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들

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26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27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3 묵상하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그분의 사명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17-18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각각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끝까지 믿지 않은 유대 사람들(21절)과 둘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는 전혀 관심 없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며 실속만 찾는 군인들(23-24절), 셋째로, 눈물 흘리며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들로 말입니다(25절). 안타깝게도 이러한 반응은 2천여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구원의 복음 앞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무관심한 반면 그분 곁의 제자들은 여전히 적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4 적용하기

누구나 성경을 펴거나 조금만 귀 기울여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조롱하고 거부하고 현실의 삶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몸을 던져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나는 더 이상 안 믿는다 거부할 수도, 복음에 무관심할 수도 없습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요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감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 구원의 십자가 아래서 고작 옷 조각을 나누던 군인들처럼, 나 역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나의 현실과 삶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나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이 제 삶에 감격과 감사의 이유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SENA 목요일

20.03.12

요한복음 19:28-37

다 이루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예수께서 숨을 거두심

28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29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

31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2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뒤이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33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34 대신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5 이는 그 일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참되며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36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37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3 묵상하기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셨으며, 말씀대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30절). 즉,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엄청난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오래 전부터 예언되었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매 맞고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그 순종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고난이 눈앞에 보여도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걸어갈 때 완성됩니다.

4 적용하기

우리는 가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이라며 이미 이루어진 말씀에 대해 가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어쩌다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나의 시간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차근차근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오늘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면, 일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오늘 내가 마음이 어려워도 기꺼이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저도 하나님 말씀에 빠짐없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SENA 금요일

20.03.13

요한복음 19:38-42

네 믿음을 보여줘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예수께서 장사되심

38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39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 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40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베로 쌌습니다. 4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42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3 묵상하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 제자임을 숨기던 사람입니다(38절). 니고데모 역시 보는 눈을 피해 밤중에서야 예수님을 찾아갈 만큼 사람들을 의식하던 사람입니다(39절).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용기를 냅니다. 불이익과 곱지 않은 시선이 예상되는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고백하며, 예수그리스도를 갖기 위해 그동안 붙들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돈과 명예, 인기와 성공 등을 다 가져도 예수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4 적용하기

나는 어디에서든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나요? 지금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을 만큼 직접적인 핍박은 없지만, 친구들을 의식하거나 종교적인 논쟁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크리스천임을 적당히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부끄러워서도, 귀찮아서도 안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입을 열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은혜를 전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교회 생활과 신앙을 티 내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늘, 용기를 내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은혜에 대해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숨어 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자랑하는 당당한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SENA 토요일

20.03.14

요한복음 20:1-10

빈 무덤 앞에서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 계셔)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음을 알림

1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2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
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함

3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4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
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5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베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6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
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베가 놓여 있고 7 예수의 머리를 감쌌
던 수건은 고운 삼베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9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기도' 로 마칩니다.